

θρωπων, 골 2:22)으로 규정하면서 이 금욕적 교훈의 오류를 반박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골로새서신 본문에서 추출될 수 있는 골로새 거짓교훈의 이단적 요소들로서 ‘헛된 속임수로서의 철학’, ‘자의적 겸손과 천사숭배’, ‘유대적 절기 및 율법준수’, ‘금욕적 규정들’에 대한 주석적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이들 요소들은 골로새 이단의 성격규명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될 수 있으며, 바울이 본 서신에서 그리스도의 궁극적 우월성과 유일한 중보자적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자유를 천명하는 이유에 대한 반증적 측면으로 간주되어 질 것이다. ♣

基督教 勸懲論

원 2년 김 현 규

1. 머 리 말

참된 교회의 외적 특성은 말씀의 전파와 성례의 집행 그리고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교회의 당회들은 교인들이 말씀에서 벗어나, 제멋대로 생활해도 이따금씩 교회출석이나 하고 헌금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한 사람이라도 많은 수의 교인을 거느리려고 권징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권징은 대부분 어느 교파를 막론하고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되었고, 그 결과로 인해 교회안에서도 범죄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대 교회의 실정이다.²⁾

우리는 권징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교회일 뿐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복과 은혜를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믿는다. 그 외에도 만일 악한 생활을 하는 어떤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에서 훌륭한 지위를 가진 교인으로 남게 된다면, 그 지역사회에서 교회는 낙인을 찍히고 말 것이다. 그리하여 구원의 문은 굳게 닫히는 비극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³⁾ 이러한 현실 앞에

(註) 1) 학습·세계 문답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p.22.
제 6장 지상교회와 성도의 교회 생활중에 기록되었음.
2) 골든 H. 클락, 장로교인은 무엇을 믿는가? (나용화 역)
서울; 한국개혁주의 신행협회, 1980. p.326.
3) 존 디센, 중소교회 복회론 (김만중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1978. p.264.

서 필자는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권징의 의미를 재정리하려 한다. 그래서 권징이 없는 오늘의 교회에 어떤 뉘우침을 가져다 줄 목적으로 이 글을 쓰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면상 길이에 제한이 있는 글이므로 이 글에서는 주로 원리적인 문제들만 취급해 보도록 할 것이다.

이 글을 쓰며 안타까운 것은 실천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의 하나인 교회 권징 분야에 학적인 좋은 글을 별로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인데 이것만 보아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권징에 무관심하며, 권징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한국교회가 양적인 성장이 계속될수록 보다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지향하기위해 이 분야에 더욱 깊고 좋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2. 권징의 의미

권징이라는 단어는 discipline 으로 표기되는데 원래 라틴어 disciplina에서 유래된 것이며 그 뜻은 "instruction" "training" 등이다. 성경에서 히브리어로는 רָצוּן 로 나타나 "correction" "chastisement"로 쓰이고 있다. 또 헬라어로는 παιδεία 인데 위에 언급한 것들의 긍정적 이고 부정적인 의미를 다 갖고 있다.⁴⁾

1) 구약에서의 discipline 의 의미

구약에서는 discipline 의 의미가 주로 하나님이나 부모에 의한 징계 (punishment) 의 의미로 제한되어 사용되고 있다. (신 11:2) 결과적으로 징계의 의미가 깃들여 있는 discipline 은 어떤 권위자에 의해 서만 시행되어져야 했으니 곧 모세의 율법과 관련되어 진다. (레 26:23, 신 4:36, 11:2)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discipline 은 각종 질병,

(註 4) M.C. Tenney (Ed.), The Zondervan Pictorial Encyclopedia of the Bible (Vol. II.) Grand Rapids: Zondervan, C 1976. p. 131.

가난, 전쟁의 패배, 번영의 퇴락, 기근, 포로됨, 두려움, 죽음 등으로 표현되었다. (레 26:14-39)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16번 언급되어 있다.⁵⁾

2) 신약에서의 discipline 의 의미

신약에서는 보다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바 율법보다는 사랑과 더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엡 6:4) 즉 예수님의 생활과 가르침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책망하기 보다는 사랑을 가지고 양육이란 의미에서 이 단어를 주로 사용하셨다. 우리는 여기서 의미심장하게도 열두 제자가 discipline 로 불리우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⁶⁾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회 권징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이렇게 양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권징을 함에 있어서 교인들이 마땅히 어떻게 행동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취급해야 한다. 또 아울러서 그들이 교훈대로 행동하지 아니할 경우 그들을 어떻게 징계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함께 취급해야 할 것이다.

3. 권징권의 성경적 근거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의 제 30 장 1항에 보면 "주 예수는 그의 교회의 머리로써 왕으로써 세상의 치리와는 다른 정치 원리를 교직자들 손에 위임하셨다" ⁸⁾ 고 고백하고 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2항에서는 "이 교직자들에게 이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고 교직자들은 위임받은 효력으로 죄를 보류하거나 용서할 권리가 있으

(註 5) Ibid.

6) Ibid.

7) Westminster 에 회집한 성역자 총회에서 스코틀랜드 교회서 파견한 대표들의 협조로 스코틀랜드, 영국, 아일랜드 세 왕국에 있는 교회간에 약속한 신앙 일치에 일환으로 가결됨. 1647년 총회에서 가결되고 스코틀랜드 교회의 공적이요 공언된 신앙고백으로 1649년과 1690년 의회 법령으로 채택, 인준되었다.

8) G. I. Williamson,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Philadelphia: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64. p. 231.

니,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말씀과 권징에 의하여 천국문을 닫고,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복음의 성역으로 말미암아 필요에 의하여 책벌을 해제하고 천국문을 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⁹⁾고 말한다. 여기 첫항에서 고백하는 요지는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지교회가 현재 가지고 있는 권징권의 기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기원한 것으로 말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대개 다음과 같다. 사 9:6-7, 딤편 5:17, 살전 5:12, 행20:17-18, 히 13:7, 17, 24, 고전 12:28, 마 28:18-20, 그리고 둘째 항에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기원된 권징권이 지교회에 주어졌음을 고백함으로써, 현재 지교회가 행하는 권징 사실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권징 효력과 동일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마 16:16, 마 18:17-18, 요 20:21-23, 고후 2:6-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지교회의 권징의 신성성을 인정해야 하며 모든 교인들은 교회의 권징에 절대 순복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곧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4. 권징의 목적

그러면 권징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자. 권징은 국법으로는 형법, 소송법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도들이 모인 교회도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범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교회는 뜻하지 않는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고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권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대단히 주의해야 할 것은 권징의 목적이 국가의 형법처럼 처형으로써 징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역시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에 보면 제 3항에서

(註)9) Ibid.

그 목적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목적들이 고백되어 있다.¹⁰⁾ ① 범죄한 형제들을 바로잡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행한다. ② 다른 형제들이 똑같은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다. ③ 전체 덩어리를 감염시킬지도 모르는 누룩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해 시행한다. ④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해 시행한다. ⑤ 하나님의 진노를 미리 막기 위해 시행한다.

권징은 대개 이러한 5가지의 목적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인치심을 악한자들과 회개치 않는 범죄자들이 짓밟음을 보고도 교회가 만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온 교회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처럼 권징의 참된 목적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범죄를 방지하여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있다. 또 범죄자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여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지도함에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권징을 시험함에 있어 항상 그 범죄자를 회개 시킴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성경이 제시하는 권징의 목적에 관련된 본문들은 대개 다음과 같다. 고전 5장, 딤편 5:20, 마 7:6, 딤편 1:20, 고전 11:27-34, 유다 23.

5. 권징의 방법

지교회가 행하는 권징이나 무거운 책벌들은 평신도이든지 성직자이든지 막론하고 공적인 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될 때 부과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죄란 도덕법에 대한 위반일 수도 있고, 이단 사실을 가르치는 것일 수도 있다. 이같은 경우에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범죄자를 찾아가 만일 개인적으로 권면하여도 회개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되는 경우에는 노회 앞에서 법적인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글에서 필자는 그 방법적인 절차를 영국의 Richard Baxter 목사님께서 제시하신 것들을 주로 소개할까 한다.

(註)10) Ibid., p.235.

Richard Baxter 목사는 그의 책 “참 목자상”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¹¹⁾ ① 범죄한 사람을 찾아가 권고하되 개인적으로 은밀해야 한다. ② 2차적으로는 보다 공개적인 견책을 한다. ③ 회개의 표현을 하도록 설복시킨다. ④ 충분한 증거없이 견책하지 않는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권징의 종류로는 다음의 3가지가 있겠다. 권계(勸戒)와 얼마 동안의 수찬 정지, 그리고 심할 경우는 출교까지 할 수 있다.¹²⁾(살전 5:12, 살후 3:6, 14-15, 고전 5:4-5, 13, 마 18:17, 딤후 3:10)

6. 신약에 기록된 권징의 경우들

신·구약성경 전체를 통하여 수 많은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권징의 의미가 보다더 우리 시대에 잘 적용될 수 있는 신약에서만 몇군데 살펴보기로 하겠다. 신약 중에서도 여러 경우들이 있겠으나 복음서, 바울서신, 일반서신으로 나누어 한 경우씩만 살펴보고 하겠다.¹³⁾

(1) 복음서에 기록된 경우(마 18:15-17)

이것은 교만한 자나 용서를 모르는 자들에 대한 경우인데 마태 18장을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하는 제자들에게 크고자 하는 자는 곧 섬기는 자가 된다고 예수께서 교훈하셨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며, 이것이 큰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인들의 우정을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한 가지는 용서에 대한 문제인데 한번은 베드로가 범죄한 형제를 용서할까요, 하는 질문을 던졌다. 그는 얼마만큼이라는 용서에

(註) 11) 리처드 백스터, 참 목자상 (박형룡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6. pp. 62-64.

12) G. I. Williamson, op.cit., p. 236.

13) 김재술, 목회학. 서울; 새중문화사, 1979. pp. 280-282.

어떤 한계성을 그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일흔번씩 일곱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함으로써 용서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아니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우리 목회자들이 권징을 함에 있어서 범죄한 형제가 어떤 회개의 가능성을 가질 때에는 언제라도 한없이 용서하여 주어야 한다는 의미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2) 바울서신에 기록된 경우(롬 16:17)

여기서는 말씀을 거스려 분쟁하는 자의 경우를 말하고 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회에게서 떠나라”고 로마서 16장 17절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는 자, 이런 자를 ‘살피고’ ‘오히려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함으로써 출교보다도 더 현명한 처리법을 목회자들에게 일러 주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내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이라”고까지 말하였다. 그밖에도 고전 5:3-5 에, 그리고 딤후 6:3-5, 11 에도 언급하였거니와 그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거짓된 교리를 찾는 자를 묵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3) 공동서신에 기록된 경우(야고보 3:2)

이 경우는 험담에 대한 징계를 나타낸다. 예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지적했다.

야고보 선생도 그의 서신 3장 2절 아래서부터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니라 능히 온몸도 갈래를 썬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먹여 온몸을 어거하며”라고 적고 있다. 그는 6절에 다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

라”고 말함으로써 입이 범하기 쉬운 죄에 대한 경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쓸데없는 험담은 교인과 교인사이에 더 나아가서는 교인과 목회자 사이에까지 이간을 붙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것이 정도를 지나치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분열되는 어려움까지 낳게되므로 목회자들은 이런이들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7. 맺 는 말

서론 부분에서도 언급 했거니와 오늘날 목회자들의 가장 큰 약점 중의 하나는 허다한 교회들이 크게 혹은 전적으로 권징에 무기력해져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기실 교인의 총원이 줄어드는 한에 있더라도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하여 교회의 참 외적 특성중의 하나인 정당한 권징을 시행하여 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권징을 시행할 때 참된 목회자는 권징을 보복의 의미로보다는 그것이 교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범한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깨닫도록하고 그에게 회개하게 함으로써 다시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선교 백년을 맞이한 오늘의 한국 교회는 사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양적으로 비대한 성장을 가져왔다. 그러나 급속한 성장에 치중한 한국 교회는 차원높은 성숙에는 거의 무관심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이러한 문제는 교회 밖에서 오히려 소리를 지를만큼 심각한 현상으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한국교회가 계속하여 성숙을 외면한 양적 팽창에만 관심한다면 그 모습은 어쩔 수 없이 비정상적인 교회로 그 질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성숙을 위해 추구해야 될 부분들이 많으나 교회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바로 권징의 회복과 올바른 시행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교회가 권징을 적시에 정당하게 시행할 때 양적인 성장에 따른 질적인 성숙을 가져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운 모습이 될 것

이다. 만일 교회가 계속하여 이 작업에 무관심하거나 또 이 일이 실패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자기 교회를 바로잡을 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비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교회의 흐름을 결코 그대로 두시지 않았던 것을 교회사의 여러 사건들이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

※ 참고문헌 :

김재술, 목회학. 서울; 세종문화사, 1979

Baxter, Richard, 참 목자상 (박형룡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6.

양승달, 실천신학 I. 서울; 세종문화사, 1974.

더센. 존, 중소교회 목회론 (김만중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1978.

Clark, G. H. The Westminster Confession; Yesterday and today.

(김진홍 역, 장로교인은 무엇을 믿는가 -어제와 오늘의 웨스터 민스터 신앙고백) 서울; 한국개혁주의 신행협회, 1980.

Hastings H(ed) Encyclopedia of Religion and Ethics.(Vol.IV), New York; T. & T. Clark, 1974.

Tenney, M. C(ed) The Zondervan Pictorial Encyclopedia of the Bible(Vol.II), Grand Rapids; Zondervan, 1976.

Williamson, G. I,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Philadelphia;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64.